



Ezra

에스라

The Road Home

Persian archers

Achaemenid Dynasty, Susa

Louvre, Paris

Understanding the Exile

바빌론 유수에 대한 이해

두 역사적 양극

→ **EXODUS** → **EXILE** →

출애굽

(땅을 선물로 받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포로기

(땅을 잃어버림)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8-6세기

선지자들

언약적 긴장

약속이 영원히 안전하게 여겨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삼하 23:5a)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
후손을 영구케 하여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시 89:28-29)

약속이 조건적으로 여겨짐

...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
형통할지라 ...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왕상 2:2-4)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네 자손이 내
언약과 저희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저희 후손도
영원히 네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시 132:11-12)

솔로몬에게 주신 여화와의 직접적 말씀

... 네가 만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왕상 9:4-7)

신명기적 기대 (신 17:14-20)

-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며
- 말을 위해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며
-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 은금을 쌓아두지 말 것이며

솔로몬의 실패

(왕상 10:26—11:3)

- 1,400 병거와 12,000 말
- 애굽으로부터 수입한 병거
- 700 왕비와 300 후궁
- 매년 25톤의 금을 축적; 은을 돌처럼 흔하게 여김

북이스라엘의 유배

이스라엘 (에브라임)

- 므나헴 왕때 디글랏 빌레셋 3세에게 조공을 바침(745-738 BC) 열왕기하 15:19-20
- 베가 왕 때, 디글랏 빌레셋 3세에 의해 첫 강제 이주 (733 BC) 열왕기하 15:29
- 사마리아의 몰락과 호세아 왕 시기 살만에셀 5세와 사르곤 2세에 의해 강제이주(722-721 BC) 열왕기하 17장

유다의 유배

- 앗수르의 아슈르 바니팔에 의한 므낫세의 강제이주와 석방(약 648 BC)
-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대한 여호야קים의 봉신 (605-598 BC)

다니엘과 세 친구의 유배 포함

- 여호야קים의 반역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한 처형 (598 BC)
- 느부갓네살에 의한 여호야קים의 강제이주 (598-597 BC, "첫 강제이주"로 불림)

에스겔의 유배 포함

- 시드기야 때, 예루살렘의 파괴와 느부갓네살에 의한 강제 이주 (587-586 BC, "2번째 강제이주"로 불림)
- 마지막 강제 이주(582 BC, cf.렘52:28-30)

성전과 이스라엘의 멸망은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레미야 25:4-7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 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 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무궁토록 준 땅에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예레미야 7:5-8

포로의 신학적 암시

첫번째 강제이주가 일시적 후퇴라는 소망이 있는 한,
마르둑은 야훼를 이기지 않았다는 자신이 있을 수 있었다.

- 바벨론의 주장은 '마르둑'이 '야훼'보다 더욱 강력했다는 것이었다.
- 그러나 첫번째 강제이주가 일시적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왜 하나님이 이교도로 하여금 그의 성전을 더럽히고, 영원히 그들의 소유가 되어야 할 땅으로부터 그의 백성들이 강제 이주 당하도록 허락 하셨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임무였다.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얹었나이다

(시편 74:3-7)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고도다

(예레미야 애가 1:1)

바벨론의 위엄은 영적인
위기를 불러일으켰다.
마르둑은 정말 야훼보다
더 위대했을까?

‘이슈타르’ 문으로 인도 하는 행렬 길

- 마차를 위한 중앙로와
그 양쪽의 보행로로
이루어진 약 20-24m
폭의 길
- 7m 두께의 벽
- 250 m 길이



Staatliche Museen
Zu Berlin
Vorderasiatisches
Museum

LION FRIEZE 사자 프리즈 장식 (Vorderasiatisches Museen)



신적 존재들을
상징하는 동물이
그려진 이쉬타르 문

황소(아닷, 기후 신)
용('마르дук', 도시의
수호신)

(Vorderasiatisches Museum, Berlin)



Dragon of Marduk 마르둑의 용

(Detroit Institute of Arts)





The Loss of Defining Symbols

상징들을 잃어버림

Land of Israel (이스라엘 땅) *Davidic King* (다윗 왕조)

Promised on oath to
Abraham's (아브라함의
descendants (자손에게
약속한 것)

The dynasty whose line
of kings would never
end (영원히 계속 될 왕조)

Zion Temple
(시온 성전)
Yahweh's
dwellingplace forever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

PRIMARY QUESTION: How
could the people of Israel
remain a distinct entity
without these defining
symbols?

주요 질문:
이스라엘 백성은 상징
없이 그들만의 독특한
존재성을 어떻게 유지
할 수 있는가?

Hope Beyond Exile

바벨론 유수, 그 이후의 소망

A Remnant Will Survive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8세기 예언들

북 왕국

-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암 9:14)
-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암 9:15)
-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호세아 3:4-5)
-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호세아 2:23)

남 왕국

-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미 2:12a)
-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나 여호와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미 4:6-7)
- 그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사 28:5)
- 그 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사 11:11-12)

I Will Bring You Back(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7th and 6th Century Prophets(7세기 6세기 선지자들)

...내가 그 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 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슥 3:19-20)

내가 내 양 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 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 (렘 23:3)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렘 50:20)

칠십 년이 차면 ...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렘 29:10-14)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흠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 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겔 11:17)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칠십년만에 그치리라...(단 9:1-3)

Good News to Mt. Zion!

시온산에의 복음

“시온산은 정의로 인해 구속될 것이다. (사 1:27)

“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 에 전하는 자여 ...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사 40:9)

“여호와께 구속 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 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사 51:11)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 (겔 44:4)

From Babylon to Persia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THE LAST KINGS OF BABYLON

바벨론의 마지막 왕들

NEBUCHADNEZZAR

(605-562 BC)

NERIGLISSAR(560-556 BC)

NABONIDUS(556-539 BC)

- Absent from the capital for 10 years
- Conducted military campaigns in Arabia, returning to Babylon only in time to see the city fall

BELSHAZZAR(545-539 BC)

- Co-regent with his father Nabonidus, ruler of Babylon.

느부갓네살(BC 605-562)

네리글리살(BC 560-556)

나보니두스(556-539 BC)

- 10년동안 수도를 비움
- 제 시간에 도시가 함락되는 것을 보기 위해 바벨론으로 돌아오는 도중, 아라비아에서 군대를 통솔

벨사살(BC 545-539)

- 그의 아버지 바벨론의 통치자인 나보니두스와 공동 섭정

Naboníduš Stele

나보니두스 석주



바벨론의 왕, 나보니두스 (556-539 BC)가 끝에 신성한 상징을 한 지팡이를 왼손에 잡고, 신을 상징하는 심볼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있다.

(British Museum, London)

Clay Cylinder Naming Nabonidus and Belshazzar

나보니두스와 벨사살의 이름이 적힌 진흙 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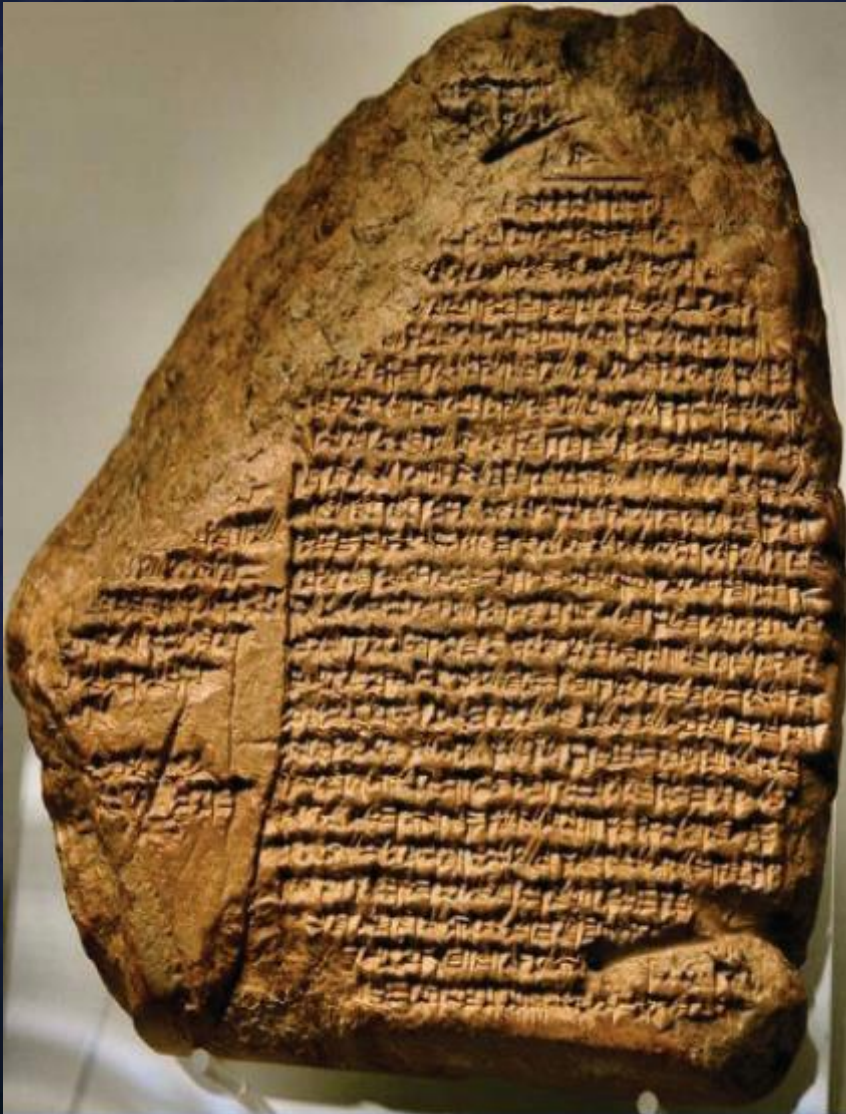
이 4인치짜리 원통 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왕은 부족한 '벨사살'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병약한 자가 이 나라의 왕으로 등극했다..." 이 원통은 또한 고레스왕이 나보니두스를 무찌른 것과 바벨론을 포로로 잡은 것에 대해 묘사했다.

(대영 박물관, 런던)



Nabonidus Chronicle

(나보니두스 연대기) (British Museum, London)



“14일째, 십파(바벨론 북서쪽 도시)가 교전없이 포위 되었다. 나보니두스는 도망갔다. 16일째,... 고레스의 군대가 교전없이 바벨론에 입성했다. 이후, 나보니두스가 바벨론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붙잡혔고,... 아라삼누 달 3일째, 고레스가 바벨론에 들어갔고, 녹색 가지가 그의 앞에 펼쳐짐에 따라 - 평화がこの 도시에 선포되었다. 고레스는 모든 바벨론에 문안을 보냈다.”

From Babylon to Persia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 나보니두스가 아라비아에서 군대를 통솔하고 그의 아들 벨사살이 수도를 감독하고 있는 동안, 고레스가 이끄는 페르시아 군대는 동쪽에 있는 바벨론 도시들을 괴롭혔다.
- 바벨론은 BC 539년 10월 12일에 포위되었고, 고레스는 바벨론을 해방시킨 자로 환영 받았다.
- 바벨론 정복 후 첫번째 해, 고레스는 타국으로 유배온 사람들을 그의 통치에서 그들 성전들의 재건축을 위해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본국 송환 칙령을 발표하였다. - 계몽된 개인적 유익의 한 형태
- 이 칙령은 예레미야의 예언적 계시의 직접적인 성취였다.(1:1; cf. 렘25:12-13; 29:10-14; 32:13-15, 42-44).
- 고레스는 이사야의 책에도 직접적으로 언급되었다(사 44:28; 45:1).



4개의 날개를 가진 형상의 부조 기둥이
고레스의 무덤 입구를 지키고 있다.

페르시아 '파사르가데'에서 발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라... 그가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사 44:24-28; cf.45:1, 13).

Cyrus, the Great

고레스 대왕

excavated in Pasargadae, Per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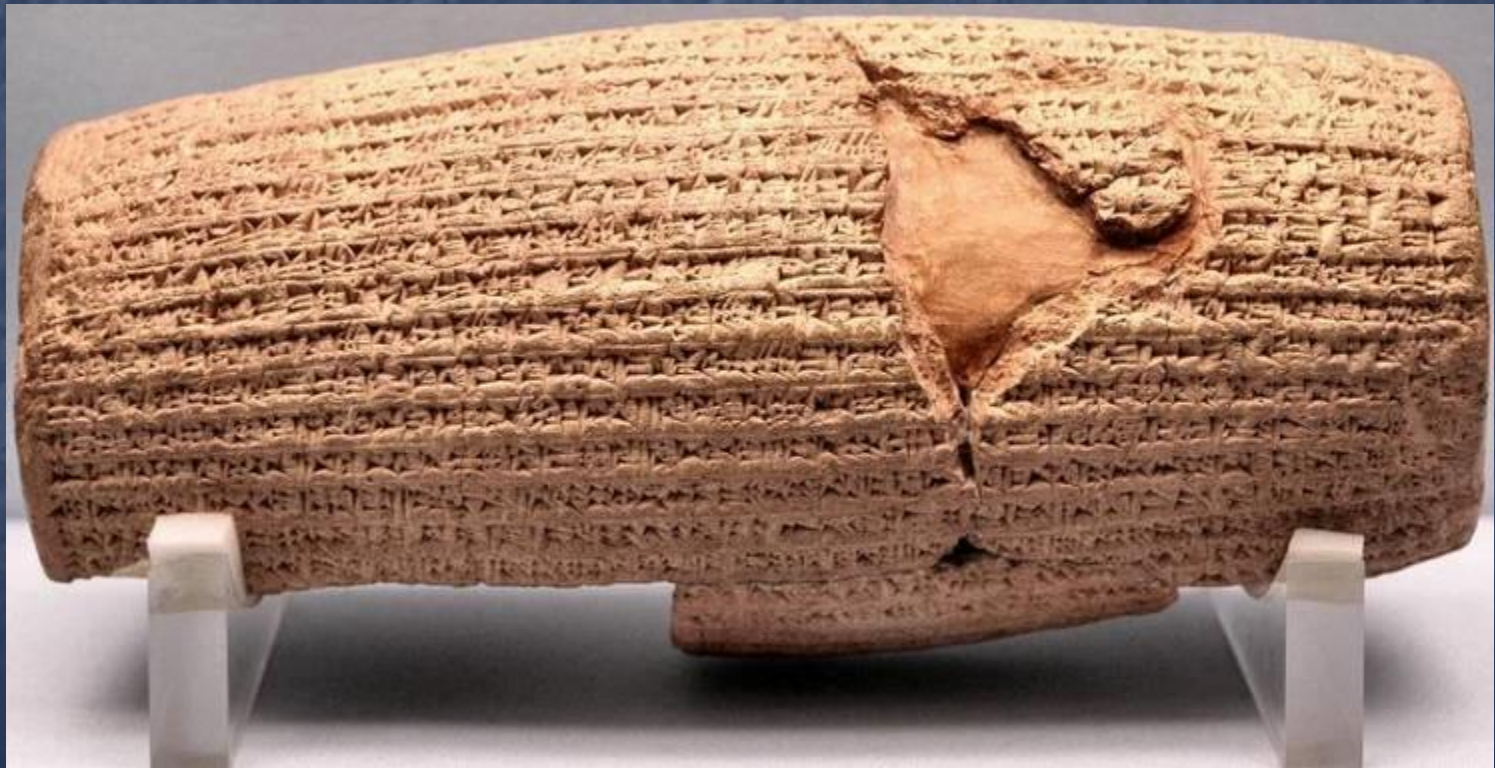
고레스왕을 묘사한 이 그림과
날개달린 수호천사의
유사성을 관찰해 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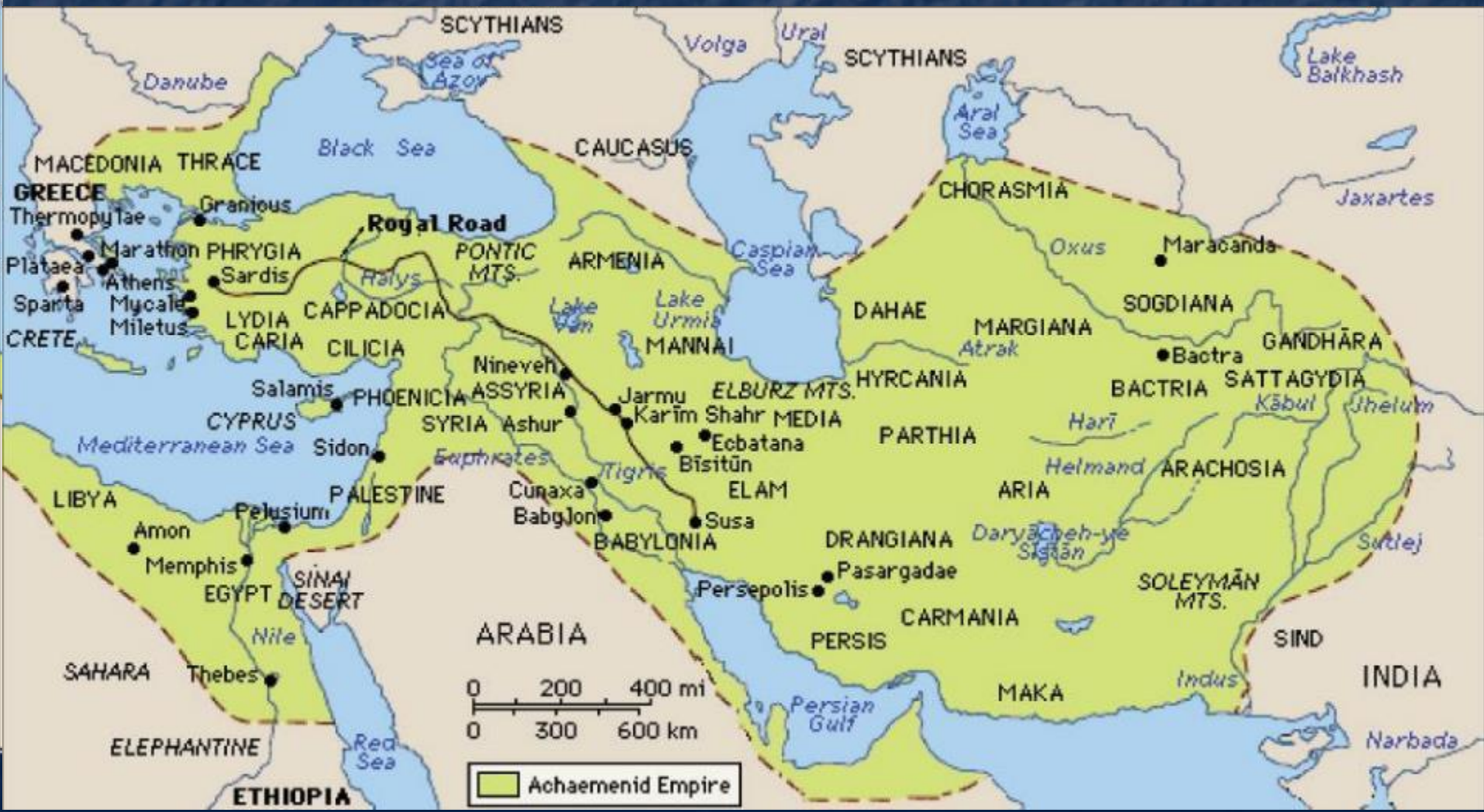
Cyrus Cylinder 539-8 BC 고레스 실린더

“나는 티그리스 다른 편에 있는 이 성스러운 도시들로 돌아왔다. 이 곳의 성전들은 오랜 시간 동안 폐허로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 살아있던 그 이미지들은 그들에게 영원한 성전이 되었다. 또한, 나는 그들의 모든 이전 거주자들을 모아서 그들이 살던 곳으로 돌려보냈다.”

British Museum, London



아르케메니드 왕국(페르시아), 다리우스 3세 통치하 최대 확장 시



Bas-Reliefs of Persians Guards (페르시아 경비병 부조)

Glazed brick(유약을 바른 벽돌), Susa(수사) (Louvre, Paris / 파리 루브르 박물관)





)
**날개 달린
사자,
수사성**
(파리 루브르 박물관)

Bull Capital, Susa

(Louvre, Paris) (황소 기둥머리, 수사)



Capital from one of 36 columns, each 20 meters high, in the great hall of the palace of Darius I in Susa.

‘수사’에 있는 다리우스 1세의 궁전 홀에 있는 36개의 기둥머리 각각의 높이는 20m

Tomb of Cyrus, discovered at Pasargadae (south-central Iran) in 1951; stands 36' high. The inscription on the tomb was seen and recorded by Plutarch in AD 90.

1951년 파나르가데(이란 중남부)에서 발견된 고레스의 무덤은 높이가 36인치이다. 비문은 AD 90년 플루타르크에 의해 쓰여졌다.



Tomb of Cyrus

고레스의 무덤

The Texts and the Histories

(본문 및 역사)

두개의 역사가 히브리 성경의 기록 가운데 삽입되어 있다

Deuteronomistic History

[신명기적 역사]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Conquest
정복
Tribal League
부족 연맹
United Monarchy
연합 왕조
Divided Monarchy
분열 왕조
Exile of Israel
이스라엘의 유배
Exile of Judah
유다의 유배

Chroniclers History

[역대기적 역사]

에스라 - 느
헤미야 연
대기

Genealogies
족보
David
다윗
Solomon
솔로몬
History of Judah
유다의 역사
Rebuilding the
Temple
성전 재건축
Rebuilding
Jerusalem
예루살렘 재건축

THE HEBREW BIBLE (히브리 성경)

Three Collections (세가지 모음)

תורה	נביאים	כתובים
(Torah)	(Nebiim)	(Kethubim)
<i>Genesis</i>	<i>Former Prophets</i>	<i>Psalms</i>
<i>Exodus</i>	<i>Joshua</i>	<i>Proverbs</i>
<i>Leviticus</i>	<i>Judges</i>	<i>Job</i>
<i>Numbers</i>	<i>Samuel</i>	<i>Megilloth (five rolls)</i>
<i>Deuteronomy</i>	<i>Kings</i>	<i>Song of Songs</i>
	<i>Latter Prophets</i>	<i>Ruth</i>
	<i>Isaiah</i>	<i>Lamentations</i>
	<i>Jeremiah</i>	<i>Esther</i>
	<i>Ezekiel</i>	<i>Ecclesiastes</i>
	<i>The Twelve</i>	<i>Daniel</i>
		<i>Ezra-Nehemiah</i>
		<i>Chronicles</i>

성경 언어

에스라-느헤미야의 원문은 두 개의 고대언어로 우리에게 전해진다. :

Hebrew 히브리어

(고대 이스라엘의 언어)

아람어로 쓰여진 작은
섹션을 제외한 모두

Aramaic 아람어

(고대 근동의 국제 언어)

에스라의 섹션들 4:7—
6:18; 7:12-16

아람어 섹션들은 주로 지방 행정관들과 페르시아 정부사이의 공식 서신들 및 페르시아 정부와 돌아온 포로 귀환자들 사이의 공식서신들이다. 페르시아기에 의해, 아람어는 무역과 외교에서의 공식언어가 되었다.

히브리 성경이 그 두 개의 고대언어로 고정되었기에, 예수님의 시기 이전에 번역이 시작되었다.

■ Septuagint 칠십인역(LXX)

예수님의 시대 두 세기 전 즈음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였다.

■ Targums 탈군

팔레스틴에서 아람어가 더 일반적 공용어였기에,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바꾸어 쓰는 것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회당 서비스에 사용되어졌다.

■ 기타

초기 기독교 시대에, 다양한 번역들이 시리아어, 콥트어, 라틴어 및 다른 언어로 나타난다.

우리의 (NRSV notes)

□ 히브리어 / 아람어

모음

사해문서 (Q Ms)

아람어 탈굼 (Tg)

라틴어 (Vg)

아람어 (Aram)

시리아어 (Syr)

점 히브리어(MT)

칠십인역 (Gk, LXX)

무점 히브리어(Heb)

paraphrase

2세기
BC

그리스도의 탄생

9세기
AD

구약에 있어서, 두 정경이 계속 존재한다.

카톨릭과 동방정교회에 의해 수용

- 토라
- 선지서
- 문학서
- 외경 (에스드라 1서 & 2서 포함)*

* 로마 카톨릭을 위한 외경은 정교회를 위한 외경과 약간 다르다.

개신교와 유대인들에 의해 수용

- 토라
- 선지서
- 문학서

히브리어 성경에 더하여, 칠십인역에도 병렬적 자료가 있다.

에스드라1서는 외경에 있는 어떤 다른 책보다 히브리 성경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에스드라 2서는 묵시 문학 장르에
있다. 여러 다른 버전에서 이름들이 일치하지 않기에, 자료들이
혼돈스러울 수 있다.

	1	2	3	4
MT	에스라	느헤미야	(없음)	(없음)
영어성경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드라1서	에스드라2서
LXX	에스드라 B		에스드라 A	(없음)
Vulgate라틴어	에스드라1서	에스드라 2서	에스드라 3서	에스드라4서

1 = 구약의 에스라서

2 = 구약의 느헤미야서

3 = 그리스어 저작은, 순서에 다른 점이 있고 구약에 나오지 않는 한 이야기를
더하여, 역대하 35-36장, 에스라, 느. 8:1-12를 포함함

4 = 묵시적 저작은 원래 그리스어, 그러나 이제는 라틴어 본문에만 남아있음

한 책 혹은 두 권의 책?

가장 초기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에스라-느헤미야는 한권의 책이었다. 이들의 공식적 분리는 비교적 후기에 이루어진 것이다.

- 이 책들은 묵시문학 에스드라 A와는 구별됨에도, 70인역에서 에스드라 B로 함께 남아 있었다.
- 이 책들은, 오리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초기부터,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분리되었다.(3세기 초)
- 제롬의 라틴의 성경에서 이 책들은 분리되었고, 에스드라 1서와 2서로 명명되어졌다.
- 이 책들이 서로 다른 저자에 의해 지어졌다는 의견이 오랫동안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15세기까지 유대인들에 의해 책들은 분리되지 않았다. (탈무드).

여전히 이 이슈가 논쟁되어지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두 책이 한권의 저작으로 지어지진 않은 것 같다는 것에 동의한다.

The Chronology

연대기

가장 쟁점이 되는 이슈 중의 하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경력 연대기이다.

직접적 독서는 에스라가 느헤미야 전에 왔다고 제시한다.
첫번째 난항은 만일 에스라의 개혁이 먼저 일어났다면,
느헤미야가 그 개혁들을 반복했어야 했기 때문에, 이들이
크게 실패이었음을 의미한다.

- 유대주의가 에스라에 의해 철저히 빚어졌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느헤미야가 나중에 왔다는 아이디어는
의문되어질 만한 듯 하다. (에스라는 한결같이 유대주의의
'아버지'로서 인정된다)
- 또 다른 의문점은 에스라의 도착 때와(에스라 7:8) 그가
토라를 읽는 때(느.2:1;8:1) 사이의 현저한 길이의 갭이다.-
13년. 왜 에스라가 그의 강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그토록
오래 기다려야 했는가?
- 그럼에도, 많은 비판적 학자들은 느헤미야가 먼저 왔을 수
있고, 그의 개혁들이, 중요했지만, 에스라가 토라를 가져올
때까지 완성되지 않았다고 제안한다.

두개의 연대기

전통적 연대기

- 그 책들의 어떤 부분도 차례가 바뀌어 있었다는 것에 대한 아무런 자료나 본문의 증거가 없다.
- 느헤미야서의 연대는, 엘레판틴 파피리(산발라를 아르사닥스 1세(465-424 BC)와 동시대인물로 간주하는 5세기의 문서)와 함께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견고하게 보인다
- 토라를 회중 앞에서 읽는 것이 에스라의 사역의 시작이 아니라, 에스라 사역의 절정이었을 것이다.

역사적 비평적 연대기

-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역사가 정경의 순서로부터 재배치된 것임에 틀림없다.
- 느헤미야가 처음에 왔고 그의 경력이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나 그쯤에서 샌드위치되어야 한다.
- 그의 개혁들은 화산식이고, 독단적인 것일 뿐이었다.
- 느헤미야의 사역 이후 에스라가 토라로 무장하여 도착했고, 그가 토라를 읽은 것이 그의 도착과 연결되어야 하고, 긴 간격을 두고 분리되지 말아야 한다.
- 에스라 7:7 과 느헤미야 1:1 의 연대가 둘중 하나 혹은 둘 다 틀렸다.

저자, 목적 & 구조

탈무드에서 고대유대 전통이 얘기하기를, 에스라가 그의 이름으로 그 책을 썼고 느헤미야가 그의 이름으로 그 한 책을 지었다고 한다(바바 바트라, 15a).

- 두 책은 1인칭 단수로 서술되는 내러티브로 기록되었다:
 - 에스라 7:27—9:15
 - 느헤미야 12:27—13:31
- 3인칭으로 서술된 상당한 부분은 편찬자의 손에 의함을 보여줄 수 있다.
- 많은 학자들이 제안하기를 이런 편찬자가 존재했다면, 이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기록 뿐만 아니라 과거 역사를 위한 역사적 문서들을 사용하여, 역대기도 집성했을 수 있다고 말한다.

에스라-느헤미야서는 역대상하서에서 시작된 역사를 종결한다.

- 예루살렘으로의 포로귀환을 설명한다.
-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려는 그들의 노력을 설명한다.
- 모세의 언약의 갱신을 묘사한다.
-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설명한다.

특별히 에스라-느헤미야서는 포로기 이후의 민족의 신학적 회복을 묘사하고 있다. 국가적 중심이 더 이상 왕조가 아닌, 성전과 토라에 있게 된 것이다.

구조

(정경적인 연대기를 따라)

에스라서

- 스룹바벨과 세스바살과 함께 유배로부터 돌아옴 (1-2)
- 예배의 회복과 두번째 성전 건축 (3-6)
 - 대제단건축과 성전 기초를 세움 (3:1-13)
 - 성전 에 대한 반대세력 (4:1-24)
 - 성전 완성(5:1—6:22)
- 에스라와 함께 유배로부터 돌아옴(7-10)
 - 에스라의 위임(7:1-26)
 - 에스라의 기록(7:27—9:15)
 - 통혼의 끝(10:1-44)

느헤미야서

- 성벽의 재건(1-7)
 - 느헤미야 의 등장(1-2)
 - 반대세력 속에서도 재건시작 (3-4)
 - 성벽 완성5-7)
- 마지막 개혁(8-13)
 - 일곱번째 달에 집결(8-10)
 - 예루살렘 에 다시 사람이 살게 함(11:1—12:26)
 - 느헤미야의 기록(12:27—13:31)
 - 성벽 봉헌(12:27-43)
 - 마지막 개혁12:44-13:31)

성전의 중요성



원래 임시 사당인 성막은 이스라엘 중심에 있는 야훼가 거하는 장소의 시작으로, 일종의 “움직이는” 시내산이었다. (출. 40:34-35; Ps. 68:7-8, 15-18, 24-29).

미래의 약속은 영구적 사당을 위한 것으로,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고 나서, “야훼 너의 하나님이 선택하실 장소”였다. **(신. 12:5-14; cf. 출. 15:13-18).**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은, 정복을 종결하고, 시온산에서의 야훼의 영구적인 거하심을 나타내는 신호였다. **(삼상. 7:1-13; 시. 78:67-69; 48:1-3, 8, 12-14; 12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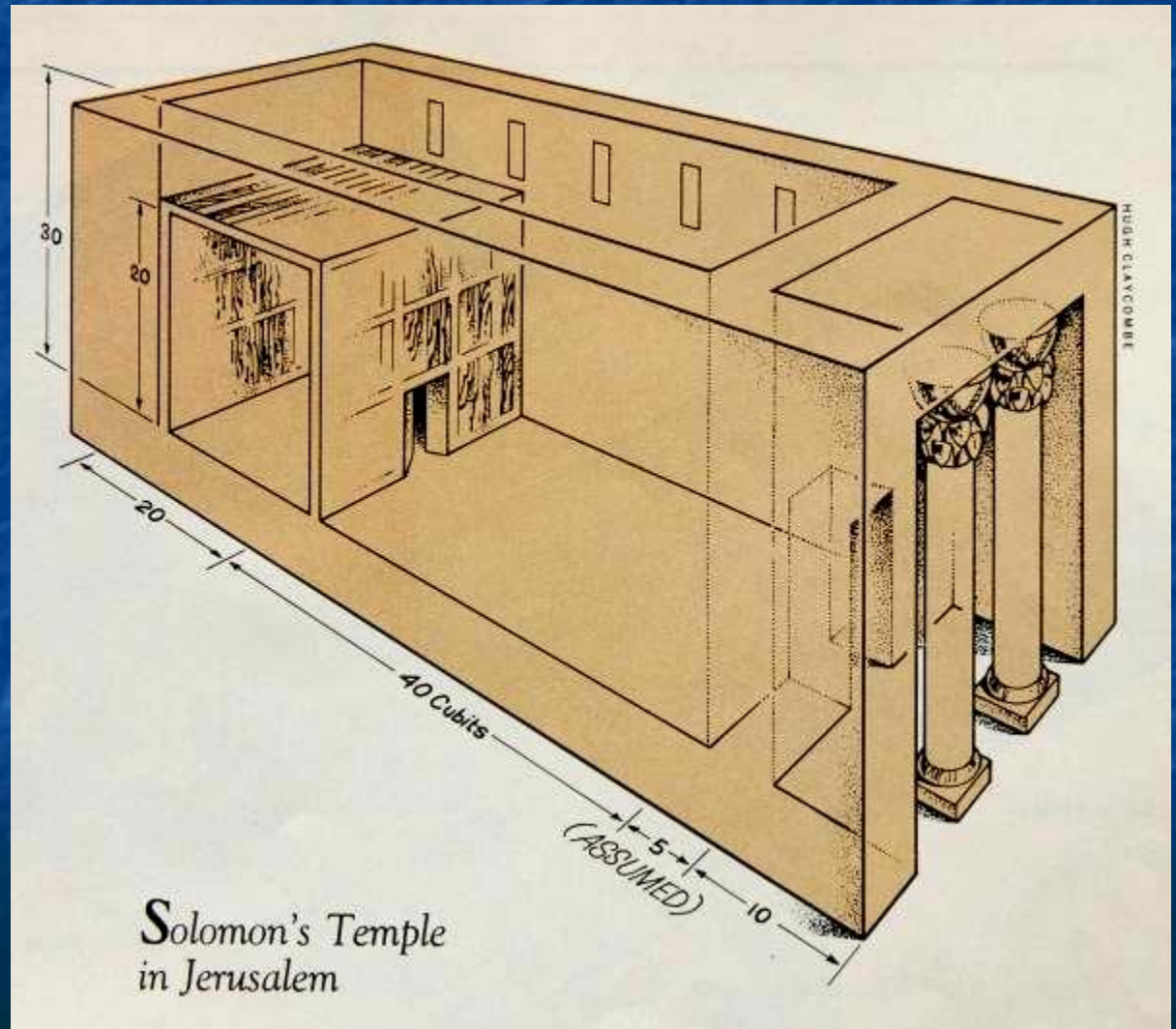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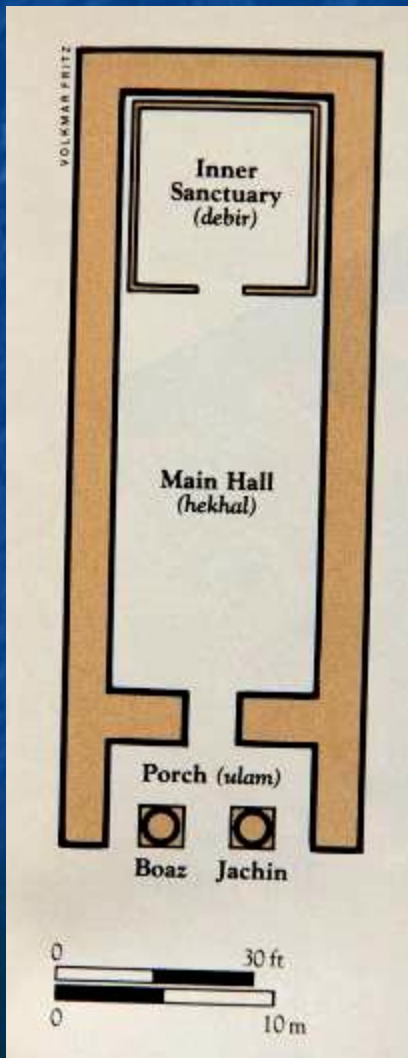
시온산과 솔로몬의 성전

고고학적 정보
에 근거한 왕궁
과 성전 언덕의
예술가적 착상



첫번째 성전

솔로몬의 성전의 설계는 성막과 유사했다.





상아 석류모양의 홀머리는 솔로몬 성전으로부터 남아있는 유일한 유물일 것이다.

새겨져 있는 것:

קדש כהנם לב[ית יהו]ח

(= 야훼의 집에 속한 제사장들께 거룩)

최근에 이 유물의 정통성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긴 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최근의(2007년 1월) 컨퍼런스에서 학자들이 이것의 정통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은 부적

(ca. 600 BC)

Israel Museum, Jerusalem

1979년에, 두개의 작은 말린 은조각이 바르 대학의 고고학자 가비 발카이에 의해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 동굴에서 발굴되었다. 펼쳐보았을때 민수기 6장 24-26절에 있는 제사장의 축복이 들어있는 부적으로 판명되었다.

이 부적은 가장 오래된 성경의 파편을 포함하고 있다.



예언적 경고

솔로몬의 성전 봉헌시 여호와와의 경고: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예루살렘과 성전의
재난을 경고했던
선지자들

미가 (3:12)

이사야(3:26; 39:5-6)

홀다(역대하 34:24)

스바냐 (1:12-13)

예레미야(7:12-15; 26:4-6)

에스겔(5:8-12, 14-17)



여호와가 성전을 버림 (겔
10:15, 18; 11:23)

“**그들이 올라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편의 산에 머무르고”

William Blake의 에스겔의 비전에
대한 수채화

보스톤에 있는 미술 박물관

에스겔의 부담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
가까이 왔느니라 ” (24:1-2)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네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4:14)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 둔 자녀를 칼에 엮드러지게 할지라” (24:20-21)

“우리가 사로잡힌 지 열두째 해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아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33:21)

파괴 일정표

각각의 날이 남은자들에게 있어 금식의 날 이 되었다.(슥c. 7:3, 5; 8:19).

예루살렘 포위 시작

10번째 달의 10번째 날 (2 Kg. 25:1; Je. 52:4)

성읍의 벽이 에워싸임

4번째 달의 9번째 날 (2 Kg. 25:3; Je. 52:6-7)

성전이 불탐

5번째 달의 7번째 날 (2 Kg. 25:8-9; Je. 52:12-13)

그달리아가 암살됨

7번째 달 (2 Kg. 25:25; Je. 41:1)

아브월의 9번째 날(6월/7월)

5번째 달(아브월)의 금식이 유대주의의 첫째 금식이 되었다.

- 첫번째 성전의 파괴의 기념일이 아브월의 7번째 날이었다.
(cf. 왕하 25:8-9).
- 두번째 성전의 파괴 기념일이 아브월의 9번째 날이었다.
- 기원후 2세기에 두번째 성전 파괴를 추모하기 위한 금식일이 7번째 날에서 9번째 날로 바뀌었다.
- 매년 그 날에 예레미야 애가서가 유대인 회당에서 읽혀졌다.

영광이 돌아오다

**여호와와 영광이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떠났다**

(10:3-5, 18-19; 11:22-24)

**여호와가 새 성전에서 영원히 그분의 백성들 사이에
거하시기 위해 돌아오실 것을 약속하셨다.**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 (43:6-7)

새 성전

C = 골방 (Eze. 41:5-7)

P = 기둥 (Eze. 40:49)

V = 현관 (Eze. 40:48-49)

N = 본당 (Eze. 41:1-2)

H = 내전 (Eze. 41:3-4)

Reconstruction by John Tayl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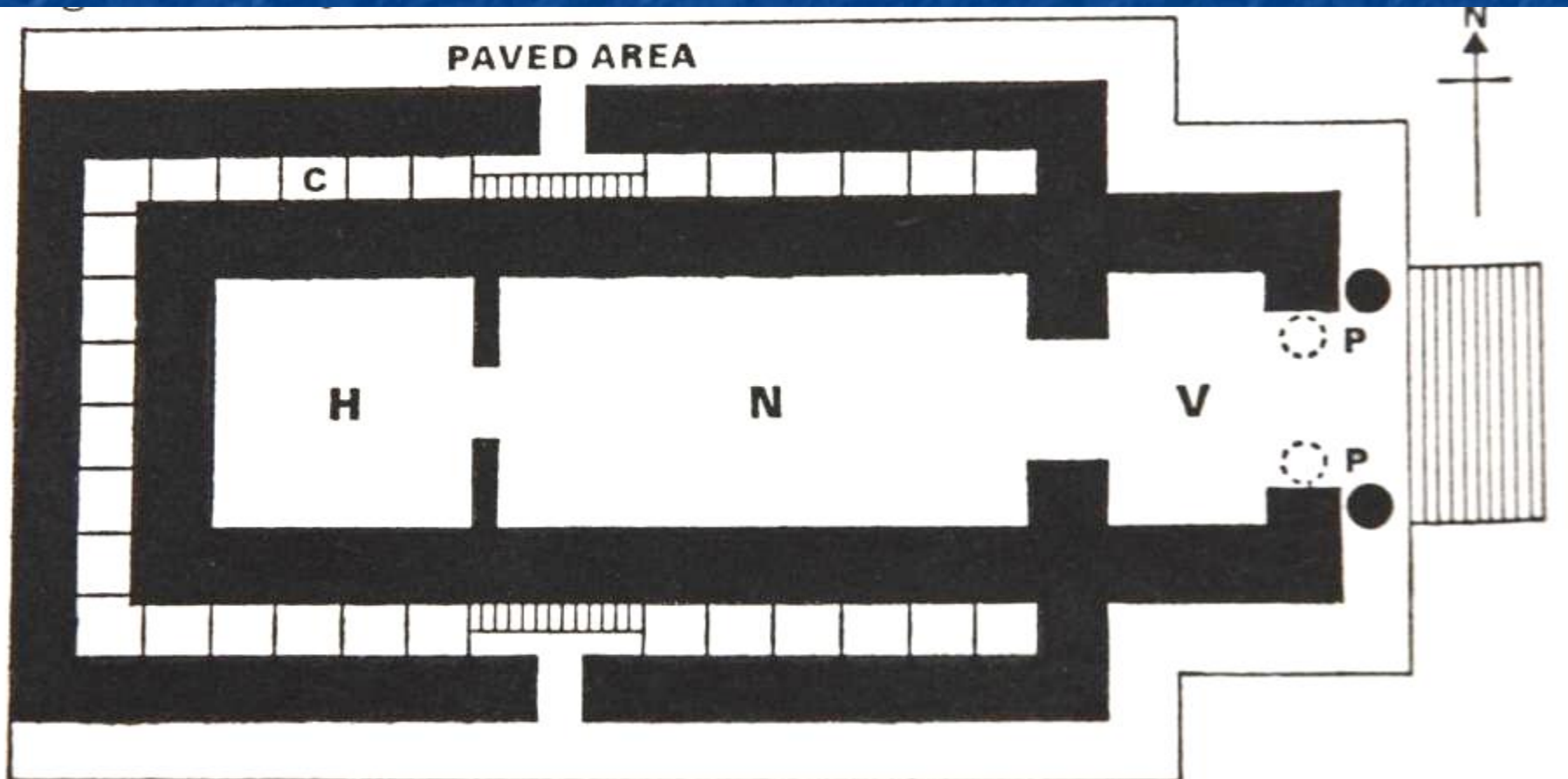


Fig. II PLAN OF EZEKIEL'S TEMPLE AREA

성전 마당

A = 제단

B = 건물

C = 방

G = 출입구

K = 부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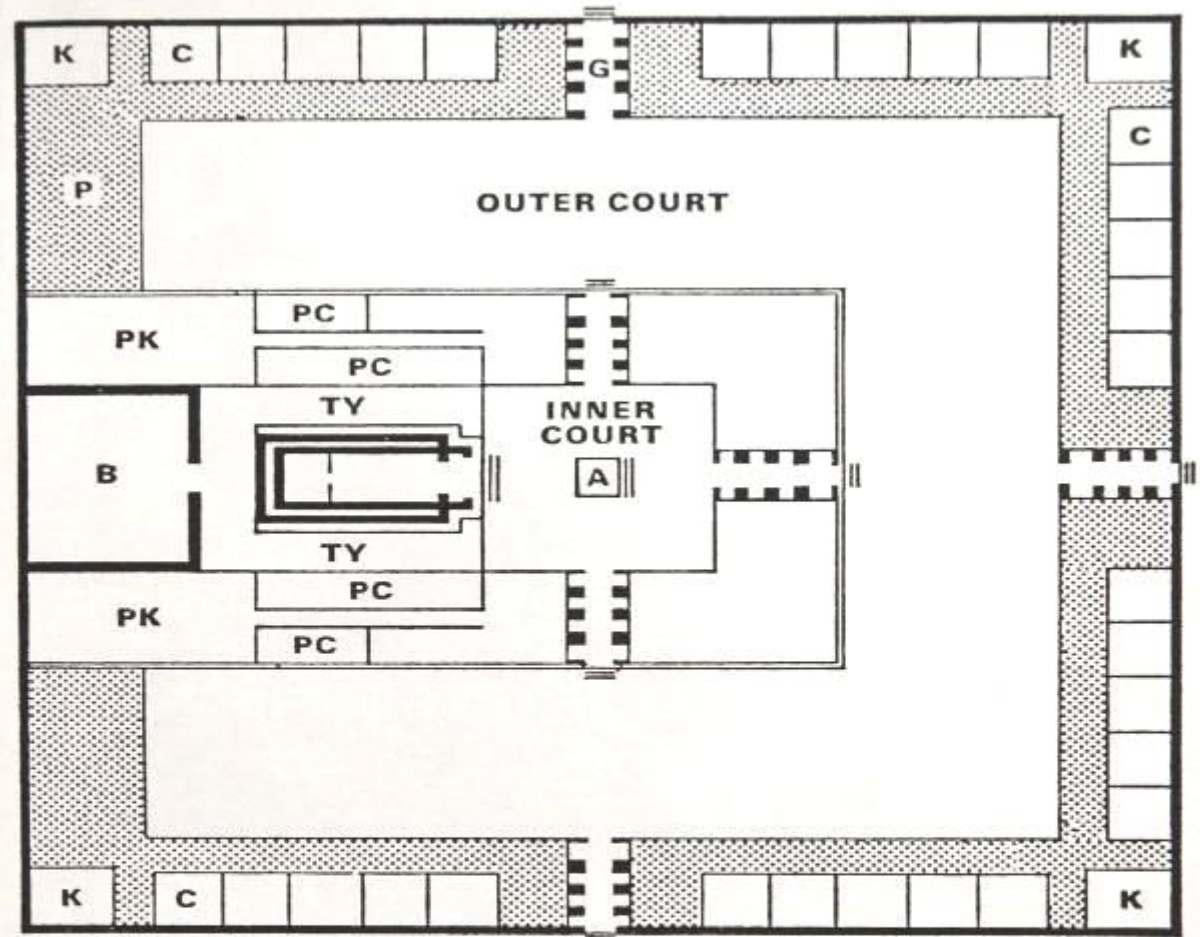
P = 포장된 길

PC = 제사장의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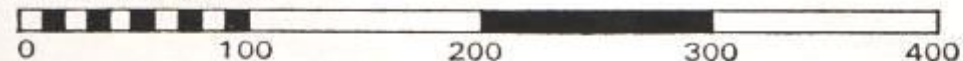
PK = 제사장의 부엌

TY = 성전 뜰

Reconstruction by John
Taylor



Scale in cubits:



A:	Altar	P:	Pavement
B:	Building	PC:	Priests' chambers
C:	Chamber	PK:	Priests' kitchens
G:	Gateway	TY:	Temple yard (AV separate place)
K:	Kitchen		

에스겔의 마지막 말

הָיָה שָׁמָּה

(야훼가 거기 계시다)

에스겔서의 마지막 말은, 회복이 성전 유기의 반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선언이다. 야훼의 마지막 말씀은, 사실은 최후의 심판이 아니고, 약속과 소망인 것이다.

세스바살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은 이 비전을 마음에 두고 그렇게 했을 것이다

- 에스겔의 새 성전에 대한 예언이 정밀하게 기록되었는데 다음 세대들이 “그 계획에 충실하고 모든 규정들을 따르기” 위함이었다. (겔 43:11-12).
- 그의 예언적 사역 동안,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들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고레스의 허락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그들의 사명과 영적인 명령을 숙지하고 있었던 것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처음으로 돌아간 그룹의 명단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와 그의 집을 예루살렘에 짓기 위해 올라가서.”(에스라 **1:5b**).

에스라서
1-2

The Initial Return

초기 귀환

예레미야의 70년 포로기를 계산함(에스라 1:1)

(렘25:8-13; 29:10; 대하. 36:21; 레26:32-35; 단9:2)

몇몇의 성경 본문이 바벨론 포로기가 70년 정도
지날 것을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연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옵션 1

예루살렘붕괴	587-6 BC
고레스 칙령	539 BC
(47-48 년- 너무 짧음)	

옵션 2

다니엘 추방	605 BC
고레스 칙령	539 BC
(66 년- 상당한 근접함)	

옵션 3

첫번째 성전붕괴	587-6 BC
두번째 성전완성	516 BC
(70-71 년- 아주 근접함)	

옵션 4

여호와김, 네코2세의봉주	609 BC
고레스 칙령	539 BC
(70 년- 아주 근접함)	

고레스와 여호와

에스라의 독자들은, 다신교적 바사인인, 고레스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말할 때 고레스를 지나치게 (과장해) 보아서는 안된다(1:2).

- 아마도 그런 연사는 단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종교적 의례였을 것이다, 그리고 고레스 실린더로부터, 고레스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네보, 벨, 마비티 등에게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 받은 모든 유배된 사람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었음을 알 수 있다.
- 유사하게, 이사야서에서 고레스는 독자들이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라고 여겨질 만큼 여러가지 숭고한 이름으로 묘사되지만 (사 41:2, 25; 44:28; 45:1) 그런 묘사에도 불구하고 야훼는 분명히 고레스에게 “너는 나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 (45:4).

고레스 칙령은 두 가지 형태로 에스라서에 나타난다.

히브리 형태는 아마도 유대인 사회 내에서 회자된 것으로 보인다 (스 1:2-4).

아람 형태 i는 아마도 바사 문서에 기록된 공문으로 여겨진다. (스 6:3-5).

고레스는 또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약탈되고(1:7-11; cf. 왕하 25:13-14//대하 36:1) 벨사살에 의해 부정해진(단 5:2-4) 성전 용기들을 유대인에게 양도했다.

애굽에서 오래 전에 일어난 것처럼, 바벨론의 원주민들로부터 받은 모든 종류의 선물들로 도움을 받게 되었다. (1:6; cf. 출. 11:2-3; 12:35-36).

성전용기

용기 항목에 불일치점이 있다:

- 목록에서 용기의 숫자는 2,499에 달하지만, 문맥에서는 5,400개로 입증된다 (1:7-11).
- 많은 영어번역자들이 이 불일치를 남겨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경은 시종일관 총 5,469 개의 용기로 제안하고 (에스드라전서 2:13-14), 그 모양이 에스라서의 몇몇 번역본들에 따른다. (예., RSV)

이런 불일치의 이유가 명확하진 않다:

- 어떤 해석자들이 제안하기를 더 중요한 용기(아니면 더 가치 있는 용기)만을 항목화했다고 제안한다.
- 다른 이들이 제안하기는 숫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문맥상 실수가 있었다고 제안한다.

바벨론으로도 결코 가지도 않고, 결코 돌아오지도 않은 유일한 물품은 바로 법궤였다.

잃어버린 법궤

언약궤의 실종에 관한 다양한 가설들이 존재한다.

- 탈무드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를 두번째 성전에는 법궤가 없었다고 한다. (요마 5.2).
- 법궤는 바벨론으로 옮겨진 성전용기 항목에 없었고,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소멸 이후에 아무도 두번째 것을 짓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렘3:16).
- 한 유대 전통에서 요시아 왕 때 “그 장소에서” 숨겨진 것으로 전해진다. (세칼림 6:1-2; 요마 53b-54b).
- 마카비서에는, 예레미야가 모세가 죽은 느보산에 그것을 숨겼다고 전해 들었다고 한다. (마카비 하서 2:1-7).
- 케브라 나가스트에 담겨진 (AD 6-9세기) 한 에디오피아 전통은 솔로몬과 시바여왕 사이의 아들(로 여겨지는 메넬릭으로 잘 알려진) 이븐-알-하킴에 의해 에디오피아로 옮겨졌다고 얘기한다..

물론 모든 “진정한 신자들”은 그것이 인디애나
존스에 의 발견되어져서 미국연방국에 현재 보관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검증 숫자는 실종된 것으로
보인다.



귀환하는 유대인의 지도자들

세스바살 (정치가) } 초기 귀환

스룹바벨 (정치가)
여호수아 (제사장)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 성전 재건

에스라 (제사장 & 서기관) } 영적개혁

느헤미야 (정치가) } 성벽 재건

세스바살의 신비

세스바살 이 귀환 그룹의 리더로 언급되었어도 (1:8, 11), 귀환한 사람들의 항목에서 그 이름을 찾을 수 없다(2:1-61). 게다가, 이어지는 장들에서의 귀환 그룹의 리더는 스룹바벨이었다. (2:2; 3:2, 8; 4:2-3; 5:2).

- 세스바살이 나중에 두번이나 그 이름이 올려지지만, 이는 과거의 기억이다.(5:14, 16).
- 하지만,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은 두번째 성전을 위해 그 기초를 쌓은 리더로서 그 이름이 명명된다 (5:16; 3:8, 10-11; 스4:9).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은 두 이름을 가진 같은 사람이거나, 서로 다른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세스바살은 그 장면에서 빨리 지나치기에, 아마도 죽었거나 아니면 바벨론으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후자를 받아들이고 있다.

세스바살

대부분의 학자들이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이 서로 다른 두 사람으로 결론 맺는다. 그 이유는:

- 에스드라 전서에서 세스바살이 먼저 오고 (2:11-15) 스룹바벨에 나중에 온다 (4:13, 42-63).
- 세스바살이 고레스에 의해 위임되나 (라1:8, 11) 스룹바벨은 다리우스 위임 아래에서 일하는 것으로 보인다. (스 4:4-5; cf. 학1:1; 2:10; 스. 1:1, 7).
- 만약 세낫살이(대상3:18) 세스바살과 동일인이라면(어떤 학자들이 생각하는 대로, 두 형태가 다 하나의 바벨론 이름, 신-아브-우수르로 돌아가기에), 스룹바벨은 세스바살의 조카일 것이다. (대상 3:19).

재적 목록

지도자:

- 느헤미야 7:7와 에스드라 전서 5:8에 기록된 나하마니라는 이름이 에스라서에 나오는 11명의 이름에 첨가되었어야 한다.
- 모두 함께, 이 12명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지파들의 전통적인 숫자들을 상징해왔다.
- 느헤미야와 모르드개라는 이름은, 나중에 언급되는 정치가 느헤미야나 에스더의 삼촌과 동일한 듯 하지는 않다.

재적 목록

순수 이스라엘민족:

- 입증할 수 있는 족보와 함께 한 자들 (2:3-20)
- 한 이스라엘 마을에, 분명한 조상의 뿌리와 함께 한 사람들 (2:21-35)
- 첫번째 성전과 분명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 (예제사장들,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 2:36-58).

분명치 않은 상태의 사람들: 이런 요구자들이 모두 완전히 제외되지는 않았고, 우림과 둠밈의 사용으로 그들의 요구가 인정될 때까지 시험기간이 주어졌다.

- 입증되지 않은 족보로 요구하는 사람들 (2:59-60)
- 입증되지 않은 제사장임을 요구하는 사람들(2:61-63)

우림과 둠뭉

이런 고대 제사장이 사용한 도구들은 대제사장의 흉배에 저장되었다. (출 28:30; 레 8:8)

- 중대한 시점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사용되어졌다. (민27:21; 삿1:1; 20:18, 23, 27-28; 삼상 10:22; 14:37; 22:10, 15; 23:2, 4, 9-12; 28:6; 30:7-8; 2 Sa. 2:1; 5:19, 23-24).
- 요세푸스에 의해 보존된 전통에 따르면, 불빛을 생성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원석이라고 한다. (Antiquities 고대문화 III.8.9).
- 70인역에서의 삼상 14:41로 인해, 때로는 불분명한 답들을 만들어 내기도 해왔고, 어떤 해석자들은 그것이 경건한 제비뽑기의 한 형태였었다고 추측해왔다.

성전을 위한 선물



다리우스 1세에 의해 바사에 소개된 금화
다릭(522-486 BC)

성전을 위한 선물들이(2:69)
금화(바사 다릭), 중량 (헬라
무게 단위minas) 그리고
겉옷으로 공급되었다.

이것은 소아시아 사르디스의
크로에수스 왕에 의해 대략
BC6세기 중반에 교환 수단이
된 화폐제도에 대한 초기
성경적인 언급이다.

바사인들은 화폐제도를 배웠고
소아시아로 그들의 제국을
확장하면서 그것을 통용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망명 귀환시
어떤이들이 금화로 선물을
지불한 이유이기도 하다.

바사 통치하에(538-332 BC)

예루살렘안 및 주변에 사는 유대인들의 공식적 지역이름이 **예훗**으로 불려졌다.

화페제도의 등장으로, 예루살렘 주변의 거액이 이와 같은 은화를 공격하기 시작했는데(ca. 370 BC), 그 은화는 사냥매를 그려 넣고 아람의 자음“yhd”이 새겨져 있다.



여화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는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시 126:1-2a

통틀어 대략 50,000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2:64-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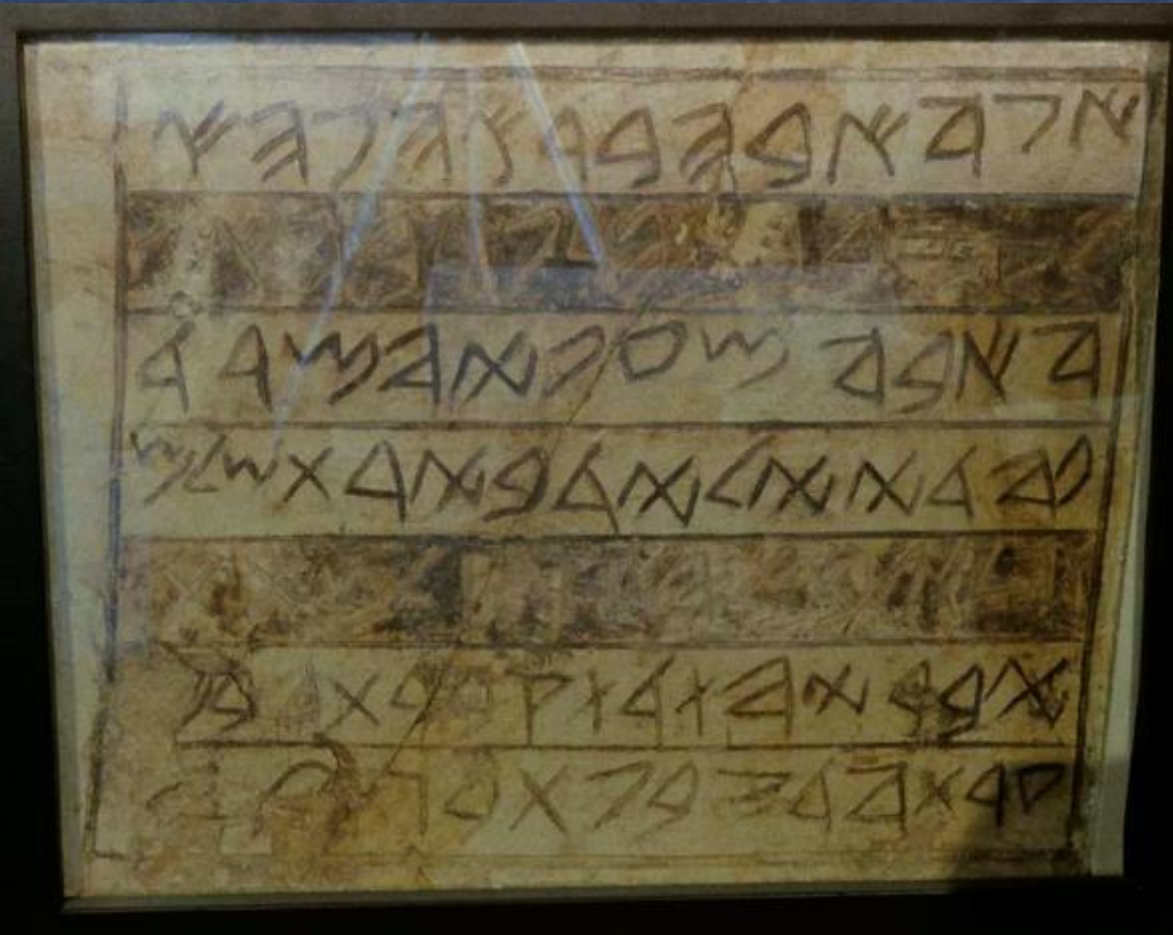
- 에스라서에 나오는 숫자적인 계산은 느헤미야7:8-65에 나오는 것과는 다르다. 추측컨대, 이런 불일치는 필사 사본시에 생긴 실수에 의한 것이다.
- 부유함(노예들을 매 여섯 중에 하나를 세었기 때문에, 많은 가족들이 실제로 정말 부유했었다!)은 재건 프로젝트를 위한 상당한 선물을 주었다 (2:68-69).

최근에 발굴된 2500년 된
돌도장에는(BC 6세기
중반에서 5세기 중반)
*sh-l-m-t*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

텔아비브대학의 Anson
Rainy라고 하는 고대
근동 문화와
셈언어학 명예교수가
제안하기를 이것은
대상 3:19에 언급된
스룹바벨의 딸일 수
있거나(슬로밋, NIV)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온
가족중의 한 사람일
것이다 (라 8:10).



마타디아스 비문



“...나, 아바,
억압받고
핍박받은 자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
바벨론으로
망명한 후 유다의
아들,
마타디아스를
데려와 그 서식에
요구되어진 대로
굴속에
장사지냈다”

고 히브리어를 주 사용한 초기 두번째 성전 기간에
작성된 아람어 비문

에스라서 3-6

두 번째 성전 건축

The Temple Mount 성전언덕 (북쪽으로 향함)

두 번째 성전의 위치는 첫 번째 성전과 동일했다. 시온산(모리아산으로도 불림, 역대하 3:1)은 다윗이 첫 번째 성전을 위해 매입한 장소였다.(역대상 21-22)



첫 번째 성전과 두 번째
성전의 대략적 위치

성전 프로젝트가 시작되다 (3)

재건축은 7번째달의 절기 기간 중 시작되었다 :

- 나팔을 부는 예식 (레. 23:24-25; 민. 29:1-6); 후에, 로쉬 하-샤나(새해)도 이 기간에 맞아 떨어진다.
- 속죄일 (레. 23:26-32; 민. 29:7-11)
- 장막절 (레. 23:33-36; 민. 29:12-40)

만일 로쉬 하-샤나가 이 때에 새해로 지켜졌다면(이 점은 논란되는데), 그러면 성전 프로젝트는 에스겔이 새 성전의 환상을 보았던 동일한 달에 시작되었다.(겔 **40:1**)

유대 달력

Nisan 니산
Iyyar 이아르
Sivan 시완
Tammuz 담무스
Ab 아브
Elul 엘룰
Tishri 티쉬리
Marchesvan마르훼시환
Chislev 기슬래
Tebeth 데벳
Shebat 스밧
Adar 아달

영어/한국 달

Mar-Apr 3-4
Apr-May 4-5
May-Jun 5-6
Jun-July 6-7
July-Aug 7-8
Aug-Sept 8-9
Sept-Oct 9-10
Oct-Nov 10-11
Nov-Dec 11-12
Dec-Jan 12-1
Jan-Feb 1-2
Feb-Mar 2-3

Seasons계절

{ 아마추수
봄비
대맥 추수
건기 시작

이른 무화과 익음
포도수확
이른 올리브
여름 밀
대추야자
여름 무화과
이른 비
늦은 올리브
겨울 무화과
쟁기질
파종
비와 눈

아몬드 꽃
감귤류

Festivals절기

{ 유월절
무교병
첫 열매들

칠칠절 (오순절)

{ 나팔 (Rosh Hashanah)
속죄 (Yom Kippur)
초막 (Succoth)

수전 (Hanukkah)

대 제단의 건설

대 제단의 세부사항은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으나, 추측하건대 이스라엘에서 발굴된 다른 제단과 비슷한 모양일 것이다.



브엘세바에서 발견된 네 뿔 제단, BC 8세기로 추정

단에서 발굴된 네 뿔 제단,
BC 9세기로 추정



희생제사 시스템의 재개

타미드Tami'd (매일 희생제사)의 회복은 과거와의 연속성을 재건하였을 것이다. (3:3; cf. Ex. 29:38-46).

- 연간 절기 및 새 달과 연결된 희생제사들은 이 역사적 연결을 강화했을 것이다 (3:4-6).
- 성전공사를 위한 자재들이 비축되었다. (3:7).
- 두번째 성전의 기초가 포로귀환 후 2년째 (i.e., 536 BC) 놓였다. (3:8-9).
- 성전완공과 함께, 첫번째 성전을 위해 다윗이 지시한 그대로, 제사장과 합창대 및 오케스트라와 함께 한 거대한 축하행사가 이루어졌다.(3:10-11; 역상. 16, 23-26; 역하. 5:13).
- 성전 기초를 놓는 것은 기쁨과 실망 모두를 야기 했다. (3:12-13; cf. 학. 2:3).

에스라 구조 4

후기 반대에 대한
삽입적 요약*

4:1-5

첫번째 저항
(공사 중단)

536 BC

아하수어로 왕에게
고발 (4:6)

486 BC

아닥사스다로부터
의 중단 명령 (4:7-23)

464-445 BC

4:24—5:1

성전공사가
재개

520 BC

* 독자에게 있어서 성전의 재공사에 대한 내러티브가 4:5부터 4:24로 바로 옮겨간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4장 24절의 “이 때에(이에)”의 구절을 4장 23절 기술과 연결된 것처럼 읽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반대사건 요약

첫번째 저항(4:1-5):

- 아마도 그들의 종교적 혼합주의와 인종적 순결성이 의심되었기 때문에, 도움을 제공하려던 지역민들(사마리아인)이 거절당하다. (cf. 왕하 17:24-41)
- 지역민들은 낙담, 협박과 위협으로 유대공동체를 괴롭히는 것으로 반응하였고, 이는 다음 16년간 지속된다.
- 성전 재건축의 이야기는 4:5에서 끝나고, 4:24까지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 그 중간은 다음 수십년 동안, 귀환한 유대공동체에 대한 반대를 요약하는 긴 삽입이다.

연대기

539 BC (고레스의 본국 송환 칙령)

538 BC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감)

537 BC (대제단이 건설됨)

536 BC (성전 공사가 시작, cf. 에스라 3:8)

공사 중단 (에스라 4:24a)

550-529 BC (고레스 통치)

529-523 BC (캄비세스 통치)

522-486 BC (다리오 1세 통치)

520 BC (공사 재개, cf. 에스라 4:24b;
학. 1:1)

반대 사건 요약 - 계속

후기 저항 (4:6-23):

- 성전이 완공된 후, 아하수세로 1세 기간 동안 (486-465 BC),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한 고발이 이루어졌다. 이 일이 에스더서에 기술된 상황에 연관되어 있지 않는 한은, 이 사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다. (아하수세로라는 이름은 오래된 페르시아 이름인 Xsayarsa의 히브리어 번역이다. 이는 쏘기문자 문서에서 아하수세로 1세와 동일인물로 판명된다.)
- 공식적 고발은 아닥사스 1세 기간(464-424 BC) 중 페르시아 관리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4:7에서 시작되는 아람어로 된 긴 섹션은 진술에 쓰인 아람 언어 그대로 이 고발을 보고한다. 기록 연구로 예루살렘의 과거의 반역의 역사가 발견되고, (아마 바벨론과 이집트 및 혹은 앗수르에 대항한 역사) 도시 재건설을 멈추게 하는 정지 명령이 발행된다. 재건축은 느헤미야가 오기전까지 다시 시작되지 않는다.

아하수에로 I

Xerxes I

Persepolis

Tehran Museum, Iran



낙담과 침체

4:5와 4:24 사이의 16년간의 중단기는 흑독하였다.

- 계속되는 가뭄과 농사의 실패들 (cf. 학. 1:6, 9-11; 2:15-17, 19)
- “작은 일의 날” (cf. 슥. 4:10)
- 환멸기(cf. 학. 1:1)
- 지역 반대로 부터 온 지속적인 적대심 (4:4-5)

두 선지자들의 협력 사역

(5:1-2; 6:14)

학개

- 사람들에게 성전보다도 그 자신들의 집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을 꾸짖음. (1:4, 9)
-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이 두 번째 성전에 돌아올 것을 약속함으로 사람들을 격려함(2:7)
- 두 번째 성전의 나중 영광이 첫 번째 성전의 영광보다 크리라고 약속한다. (2:9).
- 성전을 지을 자들에게 하나님의 종말론적 미래에 상급이 있을 것을 확신시킨다. (2:20-23)

스가랴

- 하나님이 재건축을 열망하시며 이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분노하신다는 것을 알림.(1:14-15)
- 재건축하는 자들에게 번영을 약속함. (1:16-17)
- 그 계획이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음으로 성공할 것을 강조함 (4:6-7)
- 기초를 놓은 스룹바벨이 또한 건물을 완성하여 마칠 것을 예언함 (4:8-9; 6:12-15)
- 미래가 약속과 함께 밝음을 단언함 (8:3-8, 11-23)

공사의 재개

학개와 스가랴의 지원으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사람들은 다리오 1세 통치 2년에 공사를 재개한다. (4:24—5:2).

그들은 여전히 반대와 싸웠고(5:3—6:5), 고레스의 허가 문서에 대한 기록 연구로 공사가 유효하다는 것이 발견되어져야 했다.(세스바살이라는 이름은, 그의 이름이 원 목록에 리더로 올라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조사에 있어 결정적이었다.)

고레스왕의 원 조서의 기록이 에크바타나(고레스가 그의 재임 초기를 보냈던 곳)에서 발견되었을 때, 다리오는 공사의 방해를 금지하였을 뿐 아니라(6:6-7),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에게 건축 경비를 대고 번제 제물을 주도록 명령한다. (6:8-12)

다리오 I세 (대왕)

522-486 BC

그의 두번째 재임해에 그는
고레스의 조서를 찾아 궁중
문서를 조사했다. 그리고 조서가
발견되었을 때, 그는 귀환하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두번째 성전
재건축 공사를 계속할 것을
승인했다.



페르세폴리스의 다리오 대왕의 대관객홀의 유적: 고고학자들은
코너들에서 다리오 1세와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 1세 를 건축자로서
명명한 금과 은 기초판들을 발견했다.



페르세폴리스에 있는 다리오 대왕의 주거 궁전(515 BC경 건축).



페르세폴리스의 국고 현장: 다리오 1세가 그의 보좌에 앉아있고, 그의 중앙분리대 사령관으로부터의 보고를 받고 있다. 아하수에는, 그 당시 왕세자로, 그의 아버지와 함께 상단에 있다.



완성!

공사는 두번째 성전이 **BC 516**에 완공되기까지 **척척** 진행된다. **(6:14-15):**

- 새 건물은 봉헌되고, 제사장들은 성전을 섬기도록 임명된다 (6:16-18).
- 숫 염소 열 두마리를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속죄제를 드린 것은, 북왕국이 영원히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언약 역사와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의 열망을 나타낸다. (6:17).
- 첫 번째 성전이 파괴된 후 70년이 지났고 (586 BC - 516 BC), 정확한 시간은 예레미야에 의해 명기된다.(25:12-13; 29:10-14)
- 성전 일은, 한해의 마지막 달인, 아달월에 완성되고 BC 515년의 첫 달에 유월절이 축하된다.(6:19-22).

에스라서 7-10

에스라의 출현

반세기가 지나서

“이일 후에” (7:1a) 라는 표현은 성전 완성 이후, 반세기 이상의 시간이 지난 사실을 착각하게 하고 있다.

- 성전이 기원전516년에 완성되었다.
- Artaxerxes I Longimanus (464-424 BC)의 임기 7년째 해이기에 기원전 458년이 된다. (7:8).
- 초기 리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는, 아마 죽었으므로, 여기에 나오지 않는다.

말라기의 오라클이 어떤 실마리를 주는 것이라면(보통 450경으로 추정), 공동체가 영적으로 병들고 하나님에 대해 환멸과 회의,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말. 1:2, 6-7, 13-14; 2:11, 13-14, 17; 3:5, 8-9, 13-14).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온다.

순수한 혈통의 제사장인 에스라가(7:1-5), 4달의 여행으로 또다른 그룹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끌 허락을 얻어냈다(7:6-9).

- 에스라는 가르치는 제사장의 이상적인 본을 보여주었다.(7:6, 9b-11; cf. 레. 10:11; 신. 33:8-10; 대하 15:3; 31:4; 말 2:7).
-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조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람어), 그 내용은:
 - 원하는 만큼 많은 사람들과 그와 동반해서 함께 갈 수 있는 허가 (7:13)
 - 제사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받음 (7:15-17; 8:24-30)
 - 물자 공급을 위해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에게 쓴 영장 (7:21-23)
 - 세금 면제(7:24)
 - 판결제도를 세우고 법률 강화를 위한 치안 판사를 임명할 권위 (7:25-26)



아닥사스 다1세

Persepolis

왕 뒤에 서서
파리를 쫓고 있는
신하와 왕을
보여주고 있는
기둥 100개로
이루어져 있는
홀에서.

되풀이되는 후렴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우리 하나님의 은혜
로운 손이 우리 위에 있었다!:영역)

(7:6, 9, 28; 8:18, 22, 31)

돌아오는 그룹을 조직함

가족의 이름들이 거의 동일한 걸 보면, 에스라 그룹에 있는 가족들의 일원이 예루살렘에 먼저 가있는 가족들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음이 틀림없다.(8:1-14; cf. 2:3-15; 1 에스드라 8:28-40).

원정 일원의 명단을 살펴보는 동안 에스라는 그 가운데 레위인이 없는 것을 발견했다.(8:15).

그래서 에스라가 레위인을 모집하기 위해 추가의 시간을 할애했는데 200명 이상의 자원자들이 반응했다. (8:16-20)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시로서, 에스라는 군대의 에스코트를 요구하지 않았다.(8:21-23).

- 성공적인 여행 이후에,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8:31-36).

통혼의 스캔달

에스라의 사명은 모세오경을 가르치는 것이었고(7:10), 그리고 곧 그의 강의 사역은 깊은 도덕적 반응을 낳기 시작했다.

토라에서 결혼에 있어서 종족의 순수성을 요구하는 것이 이슈가 되었다.(출. 34:11-16; 신. 7:1-6).

- 문제는 종족의 순수성이 아니라, 종교의 순수성이었다.(개종자와의 결혼은 받아들여졌다 예를 들어 롯).
- 일차적 반응은 공동체의 리더들에게서 나왔는데, 이 리더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다른 사람들이 통혼의 범죄에 가담한 것을 보고했다. (9:1-2).
- 그 상황을 서술하는 말라기의 오라클이 같은 시대를 말하는 것이라면(거의 그러할 것이다), 어떤 유대 남자들은 이방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자신의 부인과 이혼했다. (말라기. 2:11-16).

통혼 (계속)

에스라는, 그의 민족의 언약 위반을 대중적으로 고백하면서, 그 자신의 민족과의 결속을 받아들였다. (9:6-15의 그의 기도에서 일인칭 복수를 사용한 것을 주목하라)

- 이 언약 위반은 전체 남은자 공동체에 위험을 가져왔다(9:14-15).
- 에스라의 대중적 고백은 대중을 끌어들였고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가족 리더들 중의 한명이 (10:2; 8:5, 7) 에스라가 이것을 시정하는데 있어 리더십을 취할 것을 격려했다(10:1-4).
- 새로 완성된 성전 앞에서 엄숙한 대중 집회가 결성되었다. 비가 왔는데도 (10:9) 불구하고, 에스라의 촉구에 그들은 이혼증서를 쓰는 것을 포함해서 그들의 이방부인들과 이혼하고 그들의 죄에 대해 속죄제를 드리는 것에 동의했다(10:9-44) 참고. 신명기.24:1-4).

남은 자의 개념

가데스에서의 반항이전까지 땅에 대한 약속은 자격에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대한 것이었다.

가데스에서 첫번째 세대가 여호와와의 약속에 대해 반항했다. (민수기 13-14)

그 결과로 반항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의 선고가 임했다. 두번째 세대만 그 약속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었다. (민 14:21-23; cf. 히. 3:15-19).

두번째 세대가 '남은자'가 된다. 남은자들만 약속의 상속자들이 된다.

남은 자의 개념이 계속된다

- 북왕국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 유다왕국이 남은자가 된다.
- 남왕국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 포로들이 남은자가 된다.
- 포로생활로부터 돌아온 후, 돌아온 유대인들이 남은자가 된다.